

# 이주여성들에게 희망을!

“네, 여성긴급전화1366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편안하게 말씀 해주세요” “위급한 상황입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전화벨이 울리고 상담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멘트다.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은 지난 1998년 보건복지부소속으로 사회복지법인 삼성원이 위탁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전북 도내 여성들에게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노력을 해왔다. 1366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 더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즉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상담원들이 365일 24시간 3교대 근무 체계로 구축되어 상담은 물론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 및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이주여성들에게 지지체계 및 의사소통 지원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한국문화에 대한 부적응과 의사소통의 미흡으로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매스컴에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여 정서적 지지체계가 되도록 '이주여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을 2006년 여성단체 전라북도 보조 사업으로 기획하고 진행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근접지역에 거주하는 통역전문자원봉사자(멘토)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멘티)의 연결을 통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시 상담원과 내담자 간의 의사소통을 도움으로써 빠르고 편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멘토(통역전문자원봉사자)에게는 자부심과 보람을 멘티(이주여성)들에게는 한국생활에 대한

| 글 : 박지혜 전북여성긴급전화1366 사무국장



적응 및 지지체계 구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주여성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주여성들의 상담 요청시 상담원과 이주여성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이 선정 된 후에는 3자 통화 방식(멘토, 멘티, 전북1366 상담원)을 이용하여 상담이 이루어짐으로 여성폭력, 부부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멘토는 한국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결혼 이주여성들로 체류한지 3년 이상 되며 한국어 가능자로, 통역전문자원봉사를 통해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결혼 이주여성들(멘티)에게 상담 과정에서 통역을 지원한다. 현재 16명의 이주여성들이 3개 언어(중국어, 베트남, 필리핀)로 활동을 하고 있다.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학대받는 여성과 그 자녀를 일시 보호한 후 상황에 따라 전문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통역자원봉사자(멘토)들은 지난 6월 29일 결혼이주여성과 여성 폭력, 통역자원봉사자 역할 및 자세, 대화기술 및 문화의 이해 등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상담실로 전화·방문상담을 하거나 긴급피난처에 찾아오는 이주여성들에게 통역전문자원봉사자는 통역은 물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상담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 종료 후에도 전화를 통해 인부를 묻는 등 한국가정과 문화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일시적이고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상담원들은 결혼 이주여성 한명 한명에게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 통역전문자원봉사자 중에는 “나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한국 문화에도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고 말한다.

###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지속적인 관심 필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이주여성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작지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사례회의와 평가회의를 통해 이주여성들에게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 인하여 전화상담 및 방문 상담시 3자통화(멘토, 멘티, 전북1366 상담원) 방식으로 위기개입이 용이하게 되고, 여성폭력 발생 시 전북1366 상담원과 멘토가 동시개입을 함으로써 원활한 언어소통과 위기에 처한 멘티들의 문제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지체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멘티에게 멘토와의 일대일 관계를 통해 원만한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하는데 좋은 모델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니인터뷰 | 함희화 전북여성긴급전화1366 대표

####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최근 들어 많은 외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있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의 차이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다보니 가정폭력·부부 갈등·가족갈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상담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민인통역전문자원봉사자가 지지체계가 되어주고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담이 되게 하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은 가장 큰 보람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한 이주여성이 찾아왔는데 ‘남편도 시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는 친정나라로 돌아가야겠다’며 눈물로 호소를 한 적이 있었다. 통역전문자원봉사자와 같이 내담자 집을 방문하여 남편과 시모와 상담을 하였는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서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서로 화해하여 이주여성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다.

####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교육 및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처음 한국으로 와 가정이란 울타리를 만들어 갈 때에는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이주여성은 물론 가족들도 힘든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로 인한 폭력은 없어진다. 폭력이 일어난 다음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및 근절 역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여기에 전북여성긴급전화1366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063)1366 / baro1366@hanmail.net / http://baro1366.or.kr